

Sri Lanka +

June 

RaonAtti 3rd

글 순서

승찬 글

선화 글

기연 글

금선 글

하현 글

랑카팀의 June

Seung chan

+ 익숙해진다는 것

+ Mr. Milroy와 함께하는 스리랑카

익숙해진다는 것

이런 글을 지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4개월이 지났다. 이곳 생활에 몸도, 마음도 익숙해지려 한다.

지난해 12월에 지원서를 쓸 때의 의욕적인 마음...

1월 국내훈련 때, 팀원, 스리랑카, 봉사,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의 뿌리가 흔들리기도...

2월 국내훈련 후 발대식까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갈등의 연속이었고...

3월 출국...그리고 알 수 없는 첫 걸음마에 대한 두려움...

4월 뭘지 모르게 팀원, 현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숙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5월 모든 것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자만했고, 스리랑카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나친 것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스리랑카에서 5월은 나에게 매순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팀원모두에게도 내면화의 시간이 된 시간 같다.

6월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냥 잊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다가오고 있고, 이것이 지금 그리고 미래의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라온아띠 프로그램을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일상

우리는 이제 '팀원 중 누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중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 다들 어색한 표정보다는 미소를 날리고 친해 지려고 노력한다. 우연히 만난 아저씨와도 친해졌고, 그의 집에 초대받아 다같이 요리도 배우고, 춤추며 즐기기도 했다. 혼자 마실 나갔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1시간 넘게 이야기 나누면서 낚시를 하기도 했다. 강가의 아이들과 몰래 고깃배를 타면서 놀기도 했다. 라온아띠 단원모두 하나 같은 마음이었지만, 지난 4개월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남다른 것 같다.

두려움

4개월이 지났고, 8월이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궁금하다. 사실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우리는 서로 끈끈하게 정들어 있을 것이고, 매일 보는 YMCA식구들, 자이라드 가족, आयुमी(YMCA 강아지)도 매일 본다는 느낌이 커져서 8월 이후에는 우리들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힘들 것만 같다. 이제 한달 남았는데 두렵다. '매일 눈 뜨면 스리랑카 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때론 한번씩 착각을 하기도 한다. 사실 하는 것 없이 지나가는 때도 있고, 마음이 한국에 있을 때 보다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분명 학교에서는 A학점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 것이고, 남들 다해서 한다는 토익공부, 4학년인 나에게는 취업준비를...이렇듯 경쟁구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나인데...이 곳에서는 그런 것 하나 없다. 그래서 난 8월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난 처음에는 이곳 생활이 좋지만은 않았고, 2기 선배들의 '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닫고 주변 모든 것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린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나는 볼 수 없지만 8월 귀국 후 한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곳에서 느낀 마음을 조심스레 보여주고 싶고,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과 길가다 마주치더라도 어색한 눈빛보다 웃음으로 맞이해 줄 수 있는 밝은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여기서는 입장이 달라서 현지분들이 먼저 웃어주지만 이제 나는 한국에서 '한국을 어색해 하는 이들'에게 미소를 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나는 매순간 연습 중이다.

공유

1, 2기 선배들의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말은 그들 또한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졌을 것이고, 한국에서는 경험 할 수 없는 또 다른 삶을 5개월 동안 만들어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곳 생활이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불편함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문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동반되게 한다. 이렇게 라온아띠는 한국에서는 혼자서 생각하기 힘든 고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라온아띠'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나는 이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익숙해져야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귀국 후 어떤 이야기 보따리로 1, 2기와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동기들과 어떤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만나게 될 지 궁금하다. ㅇ ㅏ~~!!!정말 생각만해도 재미있다.

(4기들의 의욕에 차있을 모습 또한 궁금하기도 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현지의 생활에 집중하기로 하고 8월 3기 폐단식 때~!*^^)

이런 마음으로 나는 현지 생활을 마음대로 디자인한 것 같다.

'마음대로'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나는 '익숙해졌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Mr. Milroy 와 함께하는 스리랑카

[Milroy 만남]

나는 3월에 성당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서 간단히 인사를 주고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를 한동안 보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6월...바닷가 산책 가는 길에 정말 우연히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때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는 자연스레 집으로 나를 초대했고, 나는 흔쾌히 그의 초대에 응했다. 홍차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가 오가면서 그가 우리팀원 모두를 초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량카팀은 항상 YMCA멤버의 틀 안에서 활동했기에 YMCA멤버가 아닌 현지인의 첫 초대인 것이어서 조금 당황했었고,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난 팀원들에게 의논하기로 하고 그의 집에서 나왔다. 그 뒤로 나는 밀로이 집에 몇 차례 더 방문 했었고, 이것이 우리 량카팀과 그와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Mr. Milroy Family]

그는 아주 유쾌하고 호탕한 성격으로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친해지는 능력이 있고, 그는 스리랑카에서는 제빵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며, 생활형편은 일반인들 보다는 윤택한 편이다. 그의 가족은 우선 덩치가 크신 만큼 마음도 넓으신 그의 아내. 우리는 그녀를 "엄마(엄마)~~"라고 부른다. 자식은 듬직한 아들 둘과 막내 딸 이렇게 셋이 있는데, 첫째는 '조지'. 그는 장남이라서 무게있는 미남형이다. 그리고 여행가이드 직업 때문에 가끔 해외출장을 가기도 한다. 둘째는 '브라이언'. 그는 음악, 운동,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한 녀석이다. 그리고 제빵사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제빵기술을 연마 중이다. 셋째 막내 딸 '밀로니'. 아직 학생이고, 피아노에 관심이 많아 성당활동에서 피아노를 치기도 한다. 이렇게 다섯이 Mr. Milroy Family다.

[5월30일]

나는 그렇게 초대 받은 이후로 우리팀원들에게 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그가 스리랑카음식, 빵과 케익을 다같이 직접 만들면서 소개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다들 거리낌없이 그의 초대에 응했고, 우리는 5월 30일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의 집에는 이미 음식을 만들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가족 모두가 우리를 기다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밀로이 가족과 함께 제빵과 요리를 시작하였다. 하현이와 나는 밀로이와 브라이언과 함께 페스트리와 케익을 직접 만들었고, 여자팀원들은 엄마와 함께 스리랑카 커리(빠리뿌와 치킨커리), 중국식 솥시까지 직접 만들었다. 정말 웃긴 것은 이들 가족은 마치 TV에서 진행하듯이 정해진 재료와 순서대로 그들의 레시피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오븐의 빵이 구워지는 시간, 밥이 다되어 가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밀로니의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었고, 우리는 유일하게 아는 스리랑카 노래 '수랑거니(여자 이름)'를 부르면서 오븐의 빵냄새도 만끽 할 수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Happy Birthday'노래가 나오면서 나를 놀라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연거푸 케익이 다 완성되고, 촛불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또다시 축하노래가 나오면서 나의 마음속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다. (이 날은 민망하지만 나의 생일이었던거...) 한국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이 모든 것을 하루도 아닌 3시간 만에 모든 것이 이뤄졌다. 이 날 정말 밀로이 가족과 나는 가족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내생에 잊을 수 없는 생일을 나는 스리랑카에서 보낼 수 있었다.

[음악회]

성당 Youth인원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열었다. 밀로이 성당 음악회에 조지의 초대로 우리팀원들 모두 초대받게 되었다. 그날 조지는 대표로서 사회를, 브라이언은 음악회 중심에서 봉고(스리랑카 스타일의 북)연주를, 밀로니는 당연히 피아노 연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이렇게 우리 다섯 모두가 그의 성당에 방문해 음악회를 즐기고, 다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루를 보냈다. 그는 나에게 매주마다 흥미로운 제안으로 서로의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

[식사초대]

이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한 횟수가 꽤 되는 것 같다. 매번 갈 때마다 풍성하게 암마가 식탁을 가득 채워주셔서 항상 고마울 따름이다. 그런데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밀로이가 한국음식에 대해서 궁금해 했다. 그래서 나와 라히루는 매번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한국문화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한번은 불고기, 다른 한번은 찜닭을 직접 만들어 갔더니, 학생일 때는 그냥 와서 먹고, 직장 생기면 그때 먹을 것을 사와도 된단다. 그리고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쉽 없이 저녁식사 초대를 권유하고, 귀국 때 '공항까지 픽업해주신다'고 까지 말씀하신다. 그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한국 가서도 연락해라', '다시 스리랑카 찾아오면 꼭 들려라'라는 멘트를 끊임없이 한다. 정말 따뜻한 말이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그들과 정이 든 나는 스리랑카에도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다.

이제 밀로이에게 타타(아빠)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친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 또한 진심으로 대하기에 나 또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물론 나는 이곳에서 이방인이고, 현지의 소통방법과 문화를 100% 인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항상 조심스럽지만 그는 나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모든 라온아띠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지금 아쉬운 느낌이 너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긴 나의 지인관계는 처음이고, 앞으로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나는 봉사활동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렇게 내가 사귀 친구는 스리랑카에서는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나의 관계도 현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일부 분이라고 판단했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달을 그와 몇 번 더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활동이 마친 뒤에도 그와 나는 '라온아띠'의 이름 그대로 아시아의 좋은 친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

끝으로 '여기서는 한국이 그리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이 곳이 그리울 것이 분명하다.'

Sun Hwa

+ 마두리언니는 너희들을 사랑해

마두리언니는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 마두리 아까 오얏라워 아더래이 (마두리언니는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는 아침마다 ymca 앞 도로 한 가운데에 심어놓은 30그루의 아기나무들에게 물을 준다. 나무들 앞에 서서 물을 붓고 있으면 양쪽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시끄러운 경적과 시커먼 매연으로 나를 공격해 댄다. 뽕뽕뽕뽕! 부웅~! 게다가 ymca로 가려고 길을 건너면 이번에는 도보에서 태우고 있는 쓰레기의 연기 때문에 눈과 코가 매캐하다. 탄내가 잔뜩 뻘 몸으로 돌아오는 내 기분은 순식간에 다운. 씩씩대며 바람이 가장 잘 부는 통로에 앉아 몸의 냄새를 날리고 있자니, '내가 왜 여기서 이려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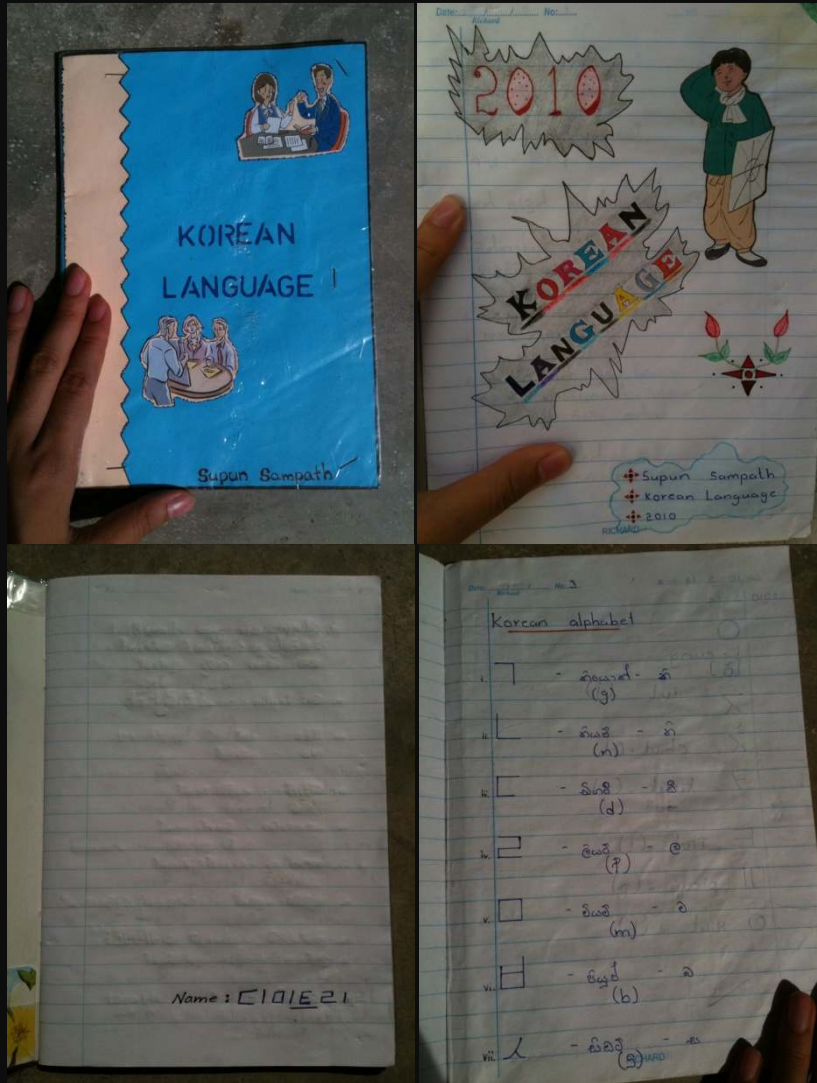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럴 때 떠오르는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이들.

한국어 교실

내가 맡은 반은 14~15살 아이들이 8명 정도 있는 반이다. 처음엔 한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음 모음을 열심히 읽어주었으나 한국어를 잘 해야만 하는 동기가 없는 아이들이기에 별효과가 없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모르는 아이들이 무슨 한글이냐는 생각에, 코리안 클래스에서 코리아 클래스로 목적 변경! 반크에서 얻어온 세계지도와 대한민국 지도를 보여주며 한국의 위치와 각 지방에 대해 설명한 후, 독도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독도에 관련된 일본이야기가 나올 때는 모두들 진지한 눈으로 초 집중해서 쳐다보았다. (심지어 옆의 친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의 지방이름과 독도, 그리고 동해(East sea)를 다 외우면 작은 부채를 선물로 주었다. "The capital city of Korea?" "서울!", "The small island?" "독도!" 등의 이름을 다 함께 합창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ymca의 담벼락을 뚫고 퍼져나가는 듯 했다. 신나게 인사하고 헤어진 그 다음시간에는 한국의 가요문화를 알기 위해 TV가요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한 시간 동안 예쁜 걸 그룹에 열심히 환호한 후, 헤어지는 인사를 하는데, 평소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던 남자아이들 세 명이 자신들의 노트를 보여줬다. 한국어 교실용으로 특별히 꾸민 노트들이었다. 스리랑카에서는 걸표지에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노트가 없어 자신들이 직접 정성스럽게 비닐로 싸고 그림종이를 붙이고 색연필로 색칠을 해 놓았다. 그 동안의 수업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한 그 노트들을 보면서 감동받았고 또 행복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애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내 한국어 교실을 재미있어 해주어서 고맙다. 또 나를 좋아해주어서 고맙다.



빈민촌 아이들

“마두리 아까(언니 혹은 누나)~~~”하고 소리지르며 각자 자기 옆자리에 앉으라고 바닥을 톡톡 치는 7~8살짜리 아이들이다. 뽀뽀를 가르쳐주니 매번 와서 내 볼에 뽀뽀해주고 자기 볼 내밀며 해달라 그러는 아이들이다. 한 번은 만들기 시간이었다. 풀을 사용해 도화지에 색종이를 나비모양으로 붙이고 있었다. 수업 여건이 넉넉지 않아 사미르와 루간떠 두 명의 남자아이들이 쓰고 있던 풀 하나를 옆에 있던 여자애와 나눠서 써야 했다. 아이들에게 “마떠 덴느(나한테 줘)” 했더니 둘이서 “아빠~!(우리거야)”라고 소리지르며 풀을 구석에 숨기고 크게 웃는 것이었다. 계속 달라고 했더니 사미르는 나를 마구 때리고 루간떠는 소리를 질러서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루간떠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들어오라고 하며 내 팔을 붙잡았다. 그때 그 아이들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진심으로 내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표정. 아이들은 내가 자기들 혹은 자기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못해 들어가는 척 했는데, 사미르가 나중에 와서 “아까, 아까” 하며 내 손에 매달리고 껴안는 것이었다. 나에게 미안했던 것이다. 나를 좋아해주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자, 아직 부족한 나를 깨닫고 부끄러워했던 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는 그들이 사랑스럽다. 자동차의 매연과 탄내가 밴 티셔츠, 끊임없이 몰려드는 파리와 모기가 오늘도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 아이들이, 이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다.

Ki Youn

+ 랑글리쉬

랑글리쉬

프롤로그

난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래서 막상 영어에 관한 주제로 글을 쓰려니 헛웃음이...크크크

“no~no~no~I speak broken English~”

모라투와YMCA 베드민턴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가 영어를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니, 이렇다. 겸양의 표현일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영어를 broken English(변칙영어)라고 표현 해야 하는가? 물론, 발음부터 영국인들과 다른 그들만의 스리랑카식 영어를 구사하지만, 그 영어에 적응이 되면 못 알아 듣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

Broken English에 대한 단상

아프리카, 아메리카, 스리랑카가 포함된 많은 아시아지역에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영어의 형태가 생겨났다. 스리랑카는 1815년부터 1948년까지의 영국의 통치아래서 현재의 이르기까지 영어가 사용되고 있고, 크게 이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싱할라어, 타밀어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영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자'라고 욕먹을 일이다. 식민통치에 무슨 변명이 있겠냐 만은, 일제의 말살정책과는 다르게 우리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스리랑카의 곳곳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교육을 보호해 주었으며, '실론티'로 유명한 스리랑카의 차 생산을 본격화 시켰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내 눈에 는 식민사관에 걸려든 '식민지 교육을 받은'사람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스리랑카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통영국식 발음이 잘 살아있다고 한다. (대영제국 통치시대 때만 하더라도 3%미만의 영국인들이 Standard British English와 Received Pronounce를 사용했다고 한다.즉, 영국에서조차도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정통 영국 발음을 구사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여왕님하~ :현지자료참조)

식민통치 기간 동안 스리랑카사람들의 영어 교육의 주 모델은 당연히 '영국식 영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영국식 특유의 억양과 발음을 마스터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나의 발음을 영국식 발음으로 고쳐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이 영국식 영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스리랑카식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 또래의 젊은이들과 만나다 보면, 겸연쩍은 마음에 자신의 영어를 'broken English'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말투 속에서 스스로의 영어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영국에서도 지역마다(요크셔,뉴캐슬,리버풀,런던 등) 자신들의 억양에, 우리나라로 치면 사투리!, 자부심을 느끼고 획일적인 영어 발음에 대한 저항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사회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영어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우리나라영어와 스리랑카영어의 구별되는 특징은 하나.스피킹이 매우 강하다는점.(일상생활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둘.휴대폰으로 문자를 해도 싱할라어 발음이 나는 그대로 영어를 음차표기 한다는 점(싱할라어 알파벳은 6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나라나 같은 특징.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유창한 영어를 사용 한다는 점. (영어가 유창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 영어 교육의 기회가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스리랑카에 여행을 온다면 노상에서 유창한 영어를 기대하진 마시길.)

많은 스리랑칸들이 자신의 지역 학교의 선생님께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집에서는 그의 부모들 또한 완벽한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싫든 좋든 완벽한 영국식 표준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문법에 틀릴 까봐 영어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지만, 스리랑카는 오히려 부담 없이 너무 자연스레 생활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에 유창한 몇몇은 그들 스스로 영국식 영어를 사용한다고 믿는 것이 아닐까?

'kiribath'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영어인데도 알아 들을 수 없는 단어가 들린다. 바로 스리랑카의 문화적 특징을 영어로 변용하여 사용한 단어이다. 'milk-rice'라고도 쓰는데, 두 단어 모두 스리랑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존재 하지만 영국영어에는 없는 말이다. 스리랑카식 영어, 문화가 언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새로운 영어이고 그것 자체로 존중 받아야 마땅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 한다.

언어학에 관한 지식이 없어, 논리적 비약이 심하지만, '랑글리쉬'란 애칭을 붙여 주고 싶다. 흐흐

Geum Seon

- + 널 못 붙잡을 노래
- + 오(鳥)조가
- + 네가 나의 손을 잡아 (June)다면

널 못 붙잡을 노래

가수 배(싱할라어로 할 수 없다라는 뜻)

오늘도 서성이네 이 동네 아~ 쉬운 걸~ 나는 힘든데 나는 힘든데 이렇게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시간을 돌리긴 너무 늦은 걸 끝나버렸어. 삼 주 남았어. 이젠~
[한 순간 내 몸이 익숙했던 이 곳이 날 밀어내. 나는 어떡해. 비자만료야~
오늘도 떠나간 나의 하루 아직도 난 기억해. 나는 어떡해. 시간이 없어.] 제발 Oh~제발 돌아와~

난 사건 생각나. 자꾸만 생각나. 예전처럼 장난을 칠 수가 없어.
난 이곳 너무 좋아서 여기 모든 걸 못 잊어. 이 노래는 널 붙잡을 수 없는 노래

[반복]

내가 생각했던 그 처음처럼 그냥 이곳 다시 봐요 그 생각. 나는 변함없어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반복] 제발 Oh~제발 변치마~!!!

오(烏)조가

똥 테러하는 저 까마귀
암 수 서로 정다운데
아~~ 외로운 이 내 몸은
늬와 함께 돌아갈꼬.....

네가 나의 손을 잡아 (June)다면

이번 달은,,, 글로 담기에 너무 큰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마감일을 하루 남겨 놓고 글이... 쓰고 싶어졌다. 물론 세세한 일보다는 크게 나의 생각만 정리해 보기로 했다. 사실 사건 일지를 쓰려고 했는데 내 귀중한 시간을 배놈의 색히를 생각하고 싶진 않았기에...

급성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2주일간 고생하고 맥주를 근 한달 간 먹질 못하였다. 이 때 나에게 힘이 된 건 멤버들과 주변 지인들의 진심 어린 걱정. 그 중 팀장인 기연언니는 나에게 죽을 매번

끓여주었다. 이렇게 심하게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 곳에서 생활한 100일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또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했다.

허무,,, 했다. 그리고 몸서리치게 싫었다. 이 상황이 참 싫었다. 팀원 모두에게 큰 짐을 준 것 같아서 내심 미안하기도 하고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라기도 했다. 그리고 정말 코디네이터로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있던 기생충 같은 배놈의 색히가 더럽고 경멸스럽게 느껴졌다.

내 몸이 아팠던 것보다 내 마음이 아팠던 게 난 더 아팠다. 그래서 치유가 잘 안되고 있나보다 .. 아직까지도....

강가의 아이들...

3월 달. 이 아이들을 처음 방문하면서 이렇게도 사람이 사는구나!라고 느꼈었다. 나에게 자꾸 살을 부대는 아이를 보며 딱히 좋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아이들 중 신발을 제대로 신은 아이는 몇 없었고 내 연두색 신발이 너무 화려하진 않았나 하는 미안한 감정들... 이 감정들이 제대로 작용했는지 지금 그 연두색 신발은 밑창에 구멍이 나서 더 이상 신을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의 난 이 아이들을 보며 뭐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주고 싶고 그렇다. 근데 내가 맡고 있는 반의 아이들은 나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서 나는 이 아이들 말에 순응하며 맞지 않고자 복종도 한다. 뭐 가끔 반항도 한다. 여자 5인방. 독수리 5인방의 날개를 부러뜨릴 만큼 힘이 센 아이들. 난 이 아이들이 좋다. 훈다이 ^^

스리랑카 암마

나에게 스리랑카 암마(엄마)는 많다. 그 중 2명의 암마랑 더 친한데 한 명은 닐루 암마. 니로사 암마이다. 닐루 암마는 여기 소사보시는 분의 아내인데 나보다 10살 정도 많다. 아이들보는 일에 찌들어서 얼굴에 표정이 없다. 정신을 많이 놓고 계셔서 처음에는 약간 부족한 분인 줄 알았다. 근데 암마는 항상 내가 재미있나 보다. 날 보면 많이 웃으신다. 두 번째 암마는 쌍둥이 딸을 가진 암마인데 칠드런스 클럽에 참여하는 쌍둥이들을 통해 친해졌다. 암마는 장난이 많아서 날 보면 항상 장난을 친다. 우리 하루에 한번 이상 문자 보내는 사이 ^^

그나저나 우리 김여사는 잘 계시겠지? 가끔 누가 진짜 엄마인지 헷갈린다. 나도...

그리고 나의 진로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관 취직, 여기오면 뭔가 명확한 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의 난 하나의 진로가 추가됐을 뿐 선택을 내릴 수가 없다...

국제개발이라는 분야.. 관심이 생긴다...

근데 이 분야에선 영어를 필수인 것 같다. 스리랑카에 와서 영어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나 어찌해야하는 걸까? 나 안 돌아갈래~~~!!!

여태 살면서 나에게 손 내밀어 준 고맙고 소중한 인연들이 많았던 것 같다. 여기에 와서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지만.. 난 이들의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네가 나의 손을 다시 잡아 June다면 난 너의 발을 닦아줄게^^
다 잘해야겠다. 모두에게... 난 받기만 했으니까~~~
잘할게요~!!!

Ha Hyun

- + 유월의 아이
- + 케머 깐느

유월의 아이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채 바보처럼 뛰어 놀았던 시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현명한 판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리 분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날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슴에 새긴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는 아이들을 보고 같이 놀고 싶었다. 라히루, 이수루, 루칸드, 그의 친구. 한참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날 웃게 만들었다. 아이처럼 승부욕을 가졌던 때가 언제였을까? 다른 무리의 아이가 자신의 친구를 건들면, 자기 일처럼 달려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 아이처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발산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친구가 크리켓 경기 지고 있다고 짜증나서 뺨 때리는 척 시늉을 했더니, 그의 친구가 크리켓 안 한다고 토라져서 뒤돌아선 낄낄 웃는 모습. 짜증나는 일이라도 즐겁게 받아들였던 적이 언제였을까? 구덩이 파 놓은 곳에 얼굴 집어 넣고 물구나무 서기, 손 짚고 앞돌기 하려다가 머리에 돌 찍어서 애써 태연한 척 하기. 흠에 옷 묻히는 것 신경 안 쓰던 때가 언제였을까? 표정 찡그리고 잡아 먹는 척 했을 뿐인데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아이들. '힘들 때 아이들 보면서 다시 힘이 났다'는 것처럼 아이들의 모습에 위안을 받는다.

복잡하고 뒤숭숭했던 유월. 내가 하는 일에 문득 의문이 들 때, 그 시간이 또 찾아왔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하루도 빠짐 없이 공부할 적에, 대학교 신입생 시절 주말도 없이 시범 연습할 적에, 교환학생 시절 머리 터지게 영어 공부할 적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냥 꼭 참고 시간을 보냈다. 여가 시간 없이 태권도 체육관에서 수업을 맡을 때엔 아이들과 노는 것에 의미를 두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라운아띠로서 하는 일에 문득 의문이 들었던 유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맥없이 힘이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정체성과 목적의식'이 심히 흔들렸던 힘든 시간, 아이들과 지내면서 많이 위안을 받았다.

한참 민감해져서 일까? 마음 편치 않았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들었을 뿐인데, 시무룩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은 무엇일까? 무엇인가 틀어진 마음이 있긴 하는데,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 같은 것이 있긴 한데, 이리저리 굴러보고 생각하다 보면 콧 막힌 것이 스르르 녹는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보는 것.' 불만을 가졌다는 사실에 슬퍼지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 내가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는 도중에 문득 날아온 곱게 접힌 편지 한 장. 편지를 받았다는 일,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감정적인 그 사람이 좋다. 그냥 모든 순간이 다 좋아졌다. 편지 하나 때문에.

힘들 때 우연히 읽은 글귀의 힘, 정말 대단하다.
'무드셀라 증후군: 좋은 일만 기억하는 또는 기억하고 싶어하는 병. 좋은 기억만 남게 하는 병.'
'칭찬은 속삭임처럼 듣고, 비난은 천둥처럼 듣는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케머 깐느(음식 먹자)

맛있는 음식들, 참 많이 얻어먹었다.

건포도 같은 것 든 초콜렛 한 조각씩 먹자고 주위 사람들 다 나누어 준 친구. 니산솔라. 빨래 널고 있는데, 자기 정원에 열린 잭 열매 주겠다고 한 이웃.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도 기어코 담벼락을 넘어 건네주셨던 옆집 이웃.

바닷가 근처에 근사한 집을 가진 훈훈한 아저씨의 푸짐한 식사 대접. 밀로이 아저씨네 가족. 강가에 알콩달콩 신혼살림을 차린 아기자기한 누나의 하루 종일 식사와 간식 대접. 수바 누나네 가족과 이웃들.

콩고기 요리해서 맛보라고 한 손가락 건네준 YMCA 의 짐승남 아저씨. 자이라뜨.

콜라 한 모금 몰래 마시라고 YMCA 바람 잘 부는 통로로 날 데려갔던 아이들.

매월 보름달 뜨는 날에 길거리에서 공짜로 나누어준 아이스크림, 커피, 과자.

그리고 한인식당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매일 맛있는 저녁식사를 만드는 라온아띠 형, 누나들.

계속 적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 정 많고 먹을 것 하나 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나도 무언가를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다. 무엇을 바라고 준 것들이 아닌데, '맛있게 먹어 주는 것에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난 또 행복에 빠진다. 간지럽게 '행복'을 많이 생각하는 중이다.

형, 누나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보리 음료수를 들이키며 이야기를 나눈다.

'어떤 일을 해내어 도움이 되었다는 의식'보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웃는 것에 의미'를 두는 공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에 고마움'을 느낀다는 공감.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행복부터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것인지 고민했다. 우리가 아닌 나의 행복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먹는 행복에서 옆으로 많이 빠진 것 같다.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스뚜띠.

Lanka, June!

+ 승찬

+ 선화

+ 기연

+ 금선

+ 하현

+ 함께















